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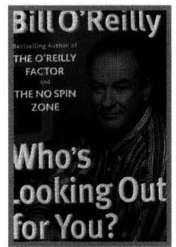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논쟁으로 빚어진 법정소송과 베스트셀러 순위경쟁

America

글 | 허선

미국의 정치권도 점차 대선 구도로 들어서면서 출판계 또한 보수와 진보 두 진영 작가들의 작품들로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작년 북 엑스포 아메리카(BEA)의 한 모임에서 시작된 심한 말싸움이 폭스뉴스와의 법정 소송으로 치달은 데 이어, 올해 비소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나란히 순위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작가가 있다. 다름 아닌 《누가 당신을 돌봐 줄 것인가 Who's looking out for you?》의 보수파 작가 빌 오랄리와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누구인가 Lies and the Lying Liars Who Tell Them : A Fair and Balanced at the Right》의 진보파 작가 알 프랭킨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의 행보는 미국 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 불리며 독자들에게 큰 흥밋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빌 오랄리는 미국 보수파 폭스뉴스의 대표적인 뉴스맨으로 거리낌 없고, 완고하며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같은 시간대 진행되는 CNN의 〈Larry King Live〉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Bill O' Reilly Factor〉 진행자이다. 그는 폭스로 이적하기 전, ABC뉴스 국내 특파원과 뉴스 매거진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리포트분야에서 두 번이나 에미상을 수상한 노련한 저널리스트이다. 또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노스핀 존 The No Spin Zone》과 《더 오랄리 팩터 The O' Reilly Factor》《침입자들 Those Who Trespass》 등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한편, 《Lies and the Lying Liars Who Tell Them》의 저자 알 프랭킨은 TV 코미디 쇼 〈Saturday Night Live〉 코미디언 출신으로 구성 및 제작분야에서 다섯 번의 에미상을 수상했으며 영화 〈When a Man loves a Woman〉을 공동 집필한 시나리오 작가이자, 《러쉬 림바우는 크고 뚱뚱한 바보다 그리고 다른 관찰들 Rush Limbaugh is a Big Fat Idiot and Other Observations》《왜 난 아니야? Why



빌 오랄리의 신작 《Who's looking out for you?》의 내용은 그 동안 오늘날의 빌 오랄리가 있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메모와도 같은 것이다. 그는 우리의 생존여부는 누가 우리를 돌봐 줄 것인가에 대한 정의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만일 정부, 미디어, 할리우드 행동주의자들 또는 종교계 모임들이 우리를 돌봐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문제에 먼저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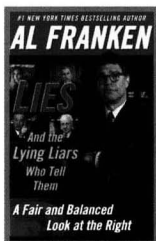


빌 오랄리와 알 프랭킨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설전으로 그들의 책들이 한층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이들의 설전에 대한 '진실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Not Me?》《오! 내가 아는 것들 Oh, the Things I know》 등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빌 오랄리의 신작 《Who's looking out for you?》의 내용은 그동안 오늘날의 빌 오랄리가 있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메모와도 같은 것이다. 그는 우리의 생존여부는 누가 우리를 돌봐 줄 것인가에 대한 정의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만일 정부, 미디어, 할리우드 행동주의자들 또는 종교계 모임들이 우리를 돌봐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문제에 먼저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길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볼 것인가를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30년 저널리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자기방어 방법들을 알려준다.

이에 반해 알 프랭킨의 《Lies and the Lying Liars Who Tell Them》는 보수파들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지닌 책이다. 그는 전작 《Rush Limbaugh is a Big Fat Idiot》에서 보수파 토크쇼 진행자



알 프랭킨의 《Lies and the Lying Liars Who Tell Them》는 보수파들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지닌 책이다. 그는 전작 《Rush Limbaugh is a Big Fat Idiot》에서 보수파 토크쇼 진행자 러쉬 림바우의 부정확성을 파헤친 데 이어 이번에는 좀 더 큰 대상(부시 대통령, 체니 부대통령, 앤 켈터, 빌 오랄리 그리고 다른 보수파들)을 적으로 삼았다.

러쉬 림바우의 부정확성을 파헤친 데 이어 이번에는 좀더 큰 대상(부시 대통령, 체니 부대통령, 앤 켈터, 빌 오랄리 그리고 다른 보수파들)을 적으로 삼았다. 보수파들의 거짓말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샅샅이 들춰 낸 그는 매우 심각한 소재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흥미롭게 풀어갔다.

이렇듯 알 프랭킨의 보수파에 대한 일방적 공격이 보수 대 진보의 싸움으로 확대된 계기는 2003년 <Book TV>에 방영되었던 북 엑스포의 '책 그리고 저자와의 오찬모임'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Bushwhacked》의 저자 몰리 아이빈스와 동시 패널로 등장한 빌 오랄리와 알 프랭킨은 자신들의 신간 소개 시간을 갖게 되었다. 먼저, 빌 오랄리가 주어진 15분 동안 자신의 신간 《Who's looking out for you?》를 소개하면서 다음 패널인 알 프랭킨을 의식한 듯, 자신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우 거칠다는 여운을 남기며 발표를 마쳤다. 곧 이어 소개에 나선 알 프랭킨은 그의 새책 커버(알 프랭킨이 부시 대통령, 체니 부 대통령, 칼럼니스트 앤 켈터 그리고 빌리 오랄리를 보여주는 모니터 앞에서 있다)를 들고 나와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자신은 신에 의해 선택되어졌다'는 말에 화가 난 신이 자신에게 이 책을 쓸 것을 요구했다며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칼럼니스트 앤 켈터 그리고 동시패널로 나온 빌 오랄리의 거짓말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꼬집기로 일관하였다. 그가 주어진 시간 15분을 넘기고 오랄리가 수상했다는 저널리즘 상에 대해 문제 제기까지 하자 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빌 오랄리는 알 프랭킨이 자리에 돌아가자마자 "저 바보가 발표시간을 35분 동안 가졌다"며 "나는 잘못 말한 적은 있어도 거짓말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알 프랭킨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빌은 "입 닦쳐" (Shut Up)라고까지 되받았으며 프랭킨이 "이 모임은 당신

한편, 《Lies and the Lying Liars Who Tell Them》의 저자 알 프랭킨은 TV 코미디 쇼 《Saturday Night Live》 코미디언 출신으로 구성 및 제작분야에서 다섯 번의 에미상을 수상했으며 영화 《When a Man loves a Woman》을 공동 집필한 시나리오 작가이자, 《러쉬 림바우는 크고 뚱뚱한 바보다》 그리고 다른 관찰들 《Rush Limbaugh is a Big Fat Idiot and Other Observations》 《왜 난 아니야? Why Not Me?》 《오! 내가 아는 것들 Oh, the Things I know》 등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의 쇼가 아니다"라고 반격하자, 오랄리는 프랭킨을 "사악한 이상주의에 눈먼 자"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 모임의 진행자이자 전 하원의원인 팻 쉬로더는 "누구 심판 호루라기 가진 사람 없나요"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역시 두 분 다 대단한 '책 판매자'라며 긴장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그러나, 빌 오랄리와 알 프랭킨 사이의 고함과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얼룩진 한바탕의 소동은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보수언론 폭스뉴스의 법정소송, 작가협회의 법원제소로 이어졌다. 폭스뉴스의 소송은 《Lies and the Lying Liars Who Tell Them》에 대한 출판을 막으려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작년 8월 11일 맨해튼 대법원에 접수된 소송에 의하면, 알 프랭킨의 이번 책은 1998년에 등록된 폭스의 트레이드마크 'Fair and Balanced' 슬로건을 책 표지에 무단 사용했으며 빌 오랄리의 노골적인 사진 사용과 빌의 두 권의 전작들을 모방한 표지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소송에

는 알 프랭킨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도 들어 있는데 이는 지난 북 엑스포에서 일어난 신랄한 싸움의 배경을 반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폭스는 듀톤 출판사가 알 프랭킨의 책을 출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도했다. PW뉴스라인에 의하면, 이러한 폭스의 소송에 대해 알 프랭킨은 “개인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자신의 책에 불러다 준 폭스뉴스에 감사를 표한다”며 “고소장에 쓰여 있는 일련의 단어들을 보니 마치 자신이 폭스뉴스의 논평자가 된 듯한 기분이다”라고 밝혔다(폭스뉴스는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코멘트로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몇 달 전에 자신은 ‘funny’ 라는 단어를 트레이드마크로 등록했는데 폭스가 자신을 ‘unfunny’ 라고 불렀을 때, 이는 트레이드마크를 위반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반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끝까지 유머감을 잊지 않았다.

폭스의 법적 소송에 연이어 작가협회가 법원에 제소하였다. 작가협회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폭스가 알 프랭킨과 듀톤출판사를 고소한 것에 기준을 둔다면 다른 책들도 또한 트레이드마크 위반이라며, 책제목에 트레이드마크된 단어나 구절을 쓰는 것은 흔한 일인데 만약 이러한 것이 막혀 버린다면 이미 출판된 책들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W뉴스라인을 통해 작가협회 전무이사 폴 아이큰 Paul Aiken은 비록 이 소송이 많은 웃음을 자아냈지만, 이번 경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어디까지가 트레이드마크이고 언론의 자유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선이 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이번 소송으로 보수 대 진보 게임에서 선점을 차지한 건 다름 아닌 알 프랭킨 쪽이었다. 먼저, 언론의 자유나 트레이드마크의 보호냐는 논란 속에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알 프랭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연합통신에 의하면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데니 친은 폭스뉴스의 알 프랭킨 책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미국 헌법의 제1 수정조항(언론의 자유)을 보호해 주어야 할 미디어 그룹이 그것을 손상시키려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번 사례는 시비의 여지조차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알 프랭킨과 그의 책은 폭스뉴스의 소송으로 연일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특별한 홍보 없이 주문이 밀려들었다. 판결 전 9월 출간 예정이었던 그의 책은 예정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졌고 초판 27만 부에 이어 5만 부가 부랴부랴 인쇄됐고 9월 초에는 이미 60만 부까지 늘어났다.

더 흥미로운 다툼은 곧 이어진 순위경쟁이다. 폭스의 소송중지 직후 알 프랭킨의 책이 아마존 닷컴에서 톱 5위에 들 때, 빌 오랄리의 책은 겨우 1,437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빌 오랄리의 책 판매가 과거 미국 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그의 전작 《The No Spin Zone》보다 강세를 보이며, 초판 75만 부에 이어 10월 초 재판 8만2,000부가 추가되면서 11월에 퍼브리셔스 위클리 리스트에서 알 프랭킨의 책은 5위에, 빌 오랄리의 책은 7위에 마크되게 된다. 올해에 들어서는 뉴욕타임스 비소설 베스트셀러(양장본) 리스트에서 1월 둘째 주에는 빌 오랄리의 책이 1위에 오른 데 이어 셋째 주에는 알 프랭킨의 책이 1위에 오르는 등 순위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북 엑스포에서 빚어진 거친 논쟁, 폭스뉴스의 소송 그리고 현 베스트셀러 순위경쟁까지 빌 오랄리와 알 프랭킨이 벌이는 이 싸움은 미국 내에 일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대변하는 하나의 스펙트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참으로 재미있는 나라임이 분명하다. ❏



《Lies and the Lying Liars Who Tell Them》을 소개한 《Publishers Weekly》. 《Lies and the Lying Liars Who Tell Them》은 보수파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지닌 책으로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빌 오랄리 등을 적으로 삼았다.

* 이 글을 쓴 허선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평화출판사,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학을 전공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